

에이즈예방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분들의 관심



이주열 남서울대학
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벌써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후보대상자의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매일 매일의 활동까지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공식적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분들은 국민적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무척이나 분주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일반 서민들이나 소외된 계층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듯 하다. 대통령이 되실지도 모를 분이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관심을 기울여 준다는 것 자체가만으로도 소외된 계층에선 큰 힘이 되고,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방문지역과 만나는 대상자가 다를 뿐 관심 영역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매일의 활동 뉴스가 특별한 수가 없으며, 국민들도 큰 관심이 없다. 진정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우리 사회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모두 다 거론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것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렵다. 그 역할에 합당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역할에 합당한 분야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건강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제안하고 싶다.

희귀성 질환이나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에이즈 감염인 및 환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가져 준다면 사회적 편견해소 뿐만 아니라 에이즈 퇴치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비교할 때 에이즈 감염인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에이즈 감염인 및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외국과 차이가 없다. 또한, 조금만 노력하면 에이즈 완전 퇴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이즈 분제는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감염인 및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퇴치운동에는 온 국민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대통령 후보의 입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 날로 국내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것이다. 행사장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분들 중 한 분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에이즈 상담안내

전화상담 : 060-700-6191(전국 어디서나)
 웹사이트 : <http://www.aids.or.kr>
 E-mail : kada@aid.or.kr

(02) 675-8060(서울),
 (051)621-0777(부산)
 (02) 675-4114(서울),
 (051)621-0444(부산)